

조계종 “돌려줘” 국·박 “지금은 안돼”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 놓고 의견대립 팽팽

불교중앙박물관의 전시·보존 능력 '쟁점'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의 반환을 둘러싸고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3월 26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앞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던 석가탑 출토유물에 대해, 현재 위탁 관리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이 15일 보존능력 미비를 이유로 반환 불가를 통보했다.

1966년 발굴된 석가탑 출토유물에는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은제사리함, 비단에 쌓인 종이등지(뚝지서편), 구슬 등 29점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조계종이 유물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1967년부터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5일 조계종에 보낸 '석가탑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 이관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화재·도난·항온항습 문제에 있어 유



최근 보존기관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26-6호).

리나라 최고의 보관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은 "3월 22일 불교중앙박물관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 진열장 골조공사 중이어서 신축건물 자체의 유해성분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같은 보존과 학적으로 민감한 지류(紙類)유물에 미칠 해독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반환 불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오전 회의 를 열고, "석가탑 출토유물은 불교

중앙박물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중앙박물관의 수장고 및 전시 시설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이관에 대해 논의해오다 돌연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부는 "유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반환 후 실무자 협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전시가 불가하다면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가탑 출토유물의 이관을 요

청한데 이어 11월 경 유물에 대한 보 령평가에 위임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 인 이관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3월 5일 유선상 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 고, 이에 조계종이 3월 7일 다시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15일 공식적으 로 반환 불가 입장을 통보해 왔다. 지 난 12일에는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 장이 총무원장 지관 스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총무원은 "반환 이외의 타협 은 있을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국립중앙박물관 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 고, 해당 유물의 반환을 촉구할 예 정이다. **여수령 기자**

“신도시 종교용지 관련 법개정안 종교적 형평성 침해할 수 있다”

김응철 교수 '신도시 계획상...' 세미나서 황우여 의원측 '개정안' 지적 특정종교가 부지 선정·독점해 법집행에 '갈등의 소지'



김포장기지구 종교시설 용지 공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원주민 지정받은 교회가 10개 포함돼 있어 종교용지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배제된 종교단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종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교용지를 배정받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접근이 극히 제한돼

있으며, 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화 전등사 기획국장 범우 스님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몇몇 돈 많고 힘 있는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별 종교 인구에 따라 용지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우 스님은 또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각 종교 또는 종교단체는 임대하는 형식으로 개정돼야 지역주민의 이익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미나는 김중보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종교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종단 중흥·유공선사 다례 봉행

태고종, 100명 선정 29일 전승관서

태고종이 그동안 종단중흥에 앞장서 온 100여명의 유공 선사(先師) 스님들에게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3월 2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대본보전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최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건립에 맞춰 역대 선조사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종단발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마련된다.

태고종은 1차로 종단에서 방한암, 한운은, 송만암, 국묵담, 박대륜, 권상노, 김법린, 박한영, 이지암, 최범술, 임석진, 안진호, 이능화, 정보성, 안덕암 스님 등 다례봉행 선사 스님 83명을 선정했다.

태고종은 지방총무원에 공문을 보내 교구에서 입적한 선사 스님의 명단을 접수받고 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총무원 직제 개편 3월 5일 11부로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은 종단 중흥 및 개혁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월 13일 3팀(총무, 교무, 재무) 5실(중무조정실, 교무관리실, 교무협력실, 재정지원실, 문화총무특보) 11부 체제로 변경했다. 또한 문화중무특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 대외적 사업인 전통문화 전승과 전통종단의 이미지 재정립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서 개편은 기존의 총무원

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9개부 체제는 3000개 사찰 및 7000여 승려를 감독·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3팀을 중심으로 한 담당부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교무팀은 부원장 보경 스님(법륜사 주지)이, 재무팀은 부원장 환우 스님이, 총무부·기획부·규정부를 총괄하는 총무팀은 중무조정실장 월해 스님(대전교구 중무원장)이 담당한다. **김원우 기자**

미륵중 국태민안대책회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8일 오후 2시 총본산 김해 관음정사에서 국태민안 기원 및 제15주년 창종기념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숙원사업인 중앙교 육원 건립을 기념해 준비됐다.

행사에서는 국태민안·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만등의 등불이 밝혀진다.(055)345-4741 **김원우 기자**

해안사 강원 3학년 16명 '산문출송'

2월 27일 산중공사서 결정... '소임 안봤다' 이유

해안사 강원 3학년 학인 16명에게 산문출송 결정이 내려졌다. 해안사는 2월 27일 산중공사를 열고 3학년 학인 전원에게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는 정초기도 때 이를 동안 소임을 보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인들의 평소 생활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안사 한 관계자는 "학인들이 대중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려 했지만 거부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실무직업에 나섰지만 학인들이 장구를 단원 화시키고 일종의 '파업'에 나섰다.

총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인들은 경기도 의왕 용화사에서 참회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화사 주지 퍼문 스님(중앙총회의원)은 "학인들이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산문출송이 과연 교육적인 처사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문출송된 학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시 산중공사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회에 강원문화 전반기가 되길 바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해안사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교구본사 한 강주스님은 "군대식 문화로 고학년이 필수로 권 령화 되는 현상이 강원 전반에 만연 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일대일 문답식 교수방법을 통해 강사와 학인들의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계율과목을 강화해 학인들이 초발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마운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등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들이여!! 모이재!! 종로 보신각으로!!

불자여러분! 황우석박사의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NT-1(줄기세포) 재연실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월 24일 황우석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 ●일시: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1시 30분

황우석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 대책협의회

문의처	서울	070-7449-9479 (알림) 02-3471-1172 (민초리) 02-711-3034 (국민의 소리)	충남, 대전	011-403-5833	부여	010-9950-1929	전남, 광주	011-605-7904	부산, 경남	051-245-9516~7 051-365-1973	전북, 전주	010-3074-7272	경북, 대구	011-9585-3047 053-754-3041	충북, 청주	019-464-8546	※ 각 지역 전세버스 운행
-----	----	--	--------	--------------	----	---------------	--------	--------------	--------	-----------------------------	--------	---------------	--------	----------------------------	--------	--------------	----------------